

투데이 칼럼

매력의 DNA

사람은 무엇에 반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 사람의 매력이다. 똑똑하고 금력, 정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매력이 없으면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한다. 상품이나 기업도 매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쉽다. 상품도 상품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팔고 매력을 팔아야 성공하는 시대다. 매력형 인간, 매력형 상품, 매력형 기업, 매력형 CEO들의 매력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매력의 DNA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무엇이 열광 하는지, 요소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매력의 DNA에는 다음과 같이 10가지다. 첫째, '꿈'은 현재를 이끄는 정신의 원동력이다. 둘째, '상상'은 현실을 바꾸어 내는 강력한 시발점이다. 셋째,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넷째, '열정'은 성공의 에너지이다. 다섯째, '끼'는 자신의 소질을 주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청춘' 영원한 젊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이다. 일곱째, '심미'는 선택하는 결정하는 바로 미터다. 순간의 미학을 보여주는 광고와 디자인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창조'는 이 시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아홉째, '관용'은 끌어안음이다. 통합의 리더십에서 관용은 될 수 있다. 열번째, '헌신'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헌신은 매력의 유전자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매력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것'이라 말할 때 누구나 수긍하는 공통분모는 있게 마련이다. 흔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평가 받는 공통점은 하나 같이 대부분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편안하고, 진실으로 대하고, 인간적인 깊이와 품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안는다. 매력에는 행동력 매력, 심미적 매력, 지적 매력, 성적 매력, 외적 매력 등도 있다. 기업의 매력형은 7가지 유전자를 갖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매력형 CEO, 매력적 인재, 매력적 제품, 매력적 디자인, 매력적 서비스, 매력적 브랜드, 매력적 근무환경이다. 이것은 직원 만족, 가족 만족, 고객 만족의 원천이 된다. 내부 고객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을 인정 하고 존중할 때 만족하고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매력적인 기업에는 '명확한 핵심가치'와 '비전'이 있다. 직원이 즐겁고, 자족이 자부심을 느끼고, 고객이 감동하는 회사가 좋은 기업이고 매력적인 기업이다. 매력을 중시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예술가처럼 벌어서 천사처럼 쓰고' 싶어 하고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사람도 기업도 고매출이 아니라 고매력으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매력 지향 사회에서 살고 있기에 매력의 DNA로 매력을 창조하는 현명한 사람, 매력이 넘치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현대사회의 성공 비법이다.

독자제언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에 양보를

며칠 전 관내인 읍내 초입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광경을 목격했다. 두 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운전자들이 양보 없이 서로 먼저 진입 하려고 진행하다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급정지를 하여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에 회전차량이 많은 경우이다. 교통량 수준이 비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 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된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이다.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교통정

온화 사업 구간내의 교차로 등에 설치 권장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거나 교차로 옆 차로를 진행하면 된다. 차량에 우선하여 진행하며 회전교차로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있다. 반면 진입하는 차량들은 선진입하여 회전하거나 교차로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 진행차로 우측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교통표지와 노면에 양보표시가 되어있다. 우선권 있는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양보와 안전운행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전근수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힘차게 출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제42회 열피이어 스테이트 빌딩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려 남자 엘리트 부문의 피오트르 로보진스키(폴란드) 등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

사설

전북도의 군산 긴급 지원 마련

전북도가 군산 지역을 위한 긴급 지원 마련에 들어갔다. 군산시와 함께 신용보증재단도 전북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잘하는 일이다. 전북도는 지난날 군산 살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동안 전북도가 말을 먼저 앞세워 미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마련이 있어야겠다.군산 경제가 몰락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도 지원하는 양상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은 그동안 제외되어 왔다는 자백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다시 또 말하거니와 민간정책 연구소 LAB2050가 내놓았던 보고서의 내용만 보아도 그렇다. 정부가 편성한 군산지원 예산총액은 1조9600억 원인데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이나 재취업 교육에 투자한 액수는 22억 원에 그쳤던 것이다. 그같은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의 예산이 인프라와 장기사업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산 살리기를 오랜 시간을 두고서 표피적으로 봉합

하려는 정신 태도가 워려졌던 것이다. 전북도가 군산시의 신용보증재단과 머리를 맞댄 것은 거듭 칭찬 하거니와 잘하는 일이다.그동안 전북도가 군산을 안타까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는 미약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도 열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군산 경제의 몰락과 관련해서는 늘 빛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군산을 돌아보면 항상 짙은 먹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군산 긴급 지원은 군산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실직자 가족들의 생존 대책을 먼저 생각해 한다는 주문이다. 군산형 일자리 마련이 착실하게 전개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팔소매를 끌어부치고 나서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한시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산 경제 살리기에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고용 안정 계속 도모해야 한다

고용 안정을 계속 도모해야겠다. 고용 안정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지역경제가 불안정한데다 일자리가 부족한 까닭이다. 역시나 예전 그대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전국 최하위 고용률이라는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하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미망한 오늘이 아닐 수 없다.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때마다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먼저 실업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 벌일이다. 미취업 젊은이들이 비정규 직장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미미하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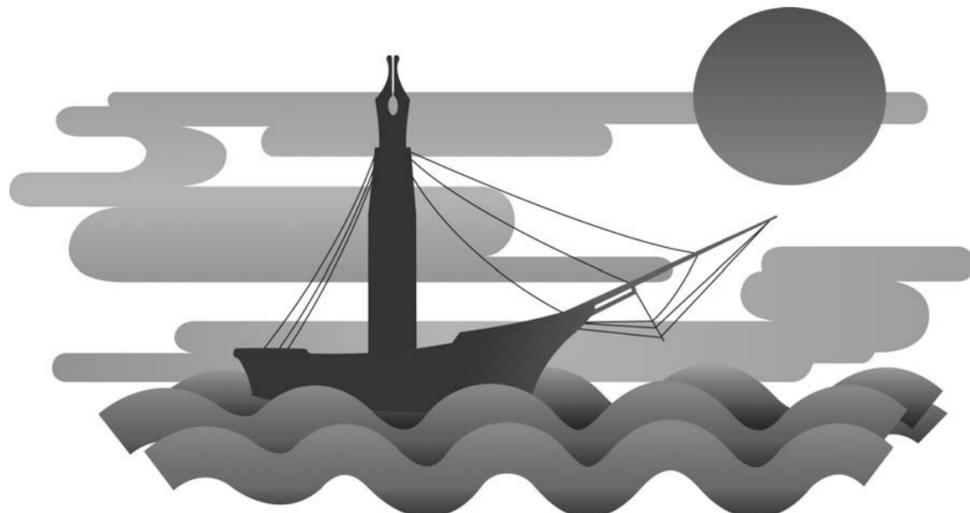
아야겠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도 부끄러워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음에도 그러저러 관청은 것처럼 넘어가려는 것도 그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안정 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내던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보여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